

“누구나 수백만원 수익”… 실체 없는 강의·컨설팅 주의해야

신종 사기 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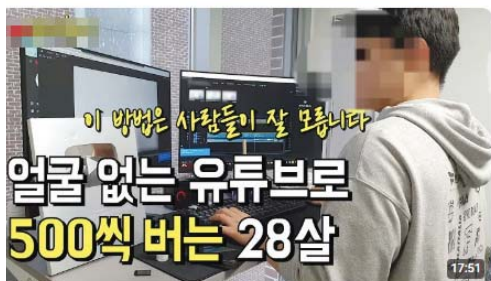
유튜브 영상 제작 등 고수익 ‘미끼’ 실제 수익 불투명… 피해자 속출 “불안하고 절박한 심리상태 노려”

#남명임(가명·63)씨는 유튜브에서 “월 300만원 수익이 가능한 부업”이라고 홍보하는 한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 생형형 인공지능(AI)이나 고난이도 영상 제작 기술 없이도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에, 남씨는 강의료 200만원과 교재비 50만원을 들여 해당 유튜브 강의 운영자의 수업을 신청했다. 운영자는 채널이 성장하지 않을 경우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남씨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는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다. 남씨는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했지만,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메트로경제신문>이 해당 채널에 남씨의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문의했으나, 채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최근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부업을 권하는 유사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강의료는 적게는 1만원대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까지 다양하며,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문구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그러나 실제 강의 내용은 양산형 저품질 쇼츠 제작에 불과해 수익이 미미할 뿐더러, 수업 전 약속했던 조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강



부업과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의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유튜브 캡처

AI 쇼츠로 월 1억 버는 부업 유튜브의 실제 화면 공개

쇼츠 #사입 #부업 기간 한정 EVENT! 쇼츠아재님의 전자책과 무료강의를 아래

3 moments 쇼츠 대본 자동화 AI 만들기 | 저작권 무료 사이트

시골에서 혼자 상경해 유튜브로 500 버는 28살

출연 신청 및 비즈니스 문의 : labtory99@gmail.com 사람들은 각자 수많은 방

의는 실제로 제공됐다’는 이유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유튜브를 통해 월 수백만원부터 억대 수익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강의 수강을 권하는 유튜브 강의 운영자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운영자는 ‘영상 한 편으로 월 수익 수백만원’, ‘노동 없이 자동 수익’, ‘영상 복붙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구로 수강생을 유인한다. 강의는 대개 AI 음성 변환기나 뉴스 요약 툴을 활용해 단시간에 쇼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영상 제작 경험이 없는 사람도 ‘바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그러나 실제 수익창출은 쉽지 않다. 유튜브 수익화 조건은 구독자 500명 이상, 최근 90일 내 공개 영상 3개 이상을 포함해 연간 3000시간 이상의 누적 시청 시간 또는 쇼츠 300만회 이

상의 조회 수를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구글 계정 2단계 인증과 수익 창출 정책 준수 등의 요건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더라도 영상 길이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광고 수익 단가는 크게 달라지며, 자동 음성·AI 요약 등으로 제작된 양산형 쇼츠는 단가가 낮아 실질적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의 외에 약속했던 컨설팅 등 사후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운영자는 “채널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본인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끊기도 한다. 수강 희망자가 강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자 해도, 운영자들은 이를 ‘노하우’, ‘비법’이라며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강의 수준이 낮더라도 수강 전에는 이를 과약하기 어렵고, 사전 예방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형사상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강의와 교재, 일부 컨설팅이 실제로 제공된 이상 ‘편취’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사상으로는 강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일부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를 수강생이 입증하기 어렵고, 운영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유튜브 강의 관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윤들닷컴 이동림 대표는 “수백만~수천만원을 벌었다는 유튜브 썸네일을 사용하지만, 해당 사례는 실제 운영자의 성과가 아니다”라며 “불안감과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D램 전략 공개 “3D 구조화 등 공정한계 극복”

IEEE VLSI 심포지엄

미세화 한계 직면… 구조혁신 강조 소재, 셀 구성 등 기술 고도화 추진

SK하이닉스가 차세대 D램 기술을 전략을 공개하며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 청사진을 내놨다. 미세 공정의 한계를 넘기 위해 수직 게이트 구조와 3차원(3D) 적층 기술을 중심으로 고성능 D램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10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반도체 회로·공정 기술 학술대회 ‘IEEE VLSI 심포지엄 2025’에서 차세대 D램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IEEE VLSI 심포지엄은 반도체 회로와 공정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대회로,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칩, 메모리 기술 등이 발표된다.

차선용SK하이닉스미래기술연구원장(CTO·부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D램 기술의 혁신’을 주제로, 고집적·고속·저전력 구현이 가능한 ‘4F² (4F 스케어) 수직 게이트(VG) 플랫폼’과 ‘3D D램’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4F² VG 플랫폼은 D램 셀 면적을

최소화하고 트랜지스터 게이트를 수직으로 세운 구조다.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셀을 배치할 수 있어 고집적화가 가능하고, 전력 소모는 줄이며 속도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류인 6F² 셀보다 효율이 뛰어나며, 회로를 셀 아래로 배치하는 ‘웨이퍼 본딩’ 기술과 함께 적용할 경우 전기적 특성까지 개선될 수 있다.

차 CTO는 또 다른 핵심 기술로 3D D램을 제시했다. 3D D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수직 방향으로 여러 층 쌓는 방식으로, 낸드플래시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 활용된다. 집적도 향상이 가능하지만 적층수가 늘어날수록 제조 비용이 증가하는 점은 해결 과제다.

SK하이닉스는 구조뿐 아니라 소재와 구성 요소까지 기술 고도화를 병행해 향후 30년간 지속 가능한 D램 기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차 CTO는 “2010년 전후만 해도 20나노가 한계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혁신을 통해 이를 뛰어넘었다”며 “D램 기술에 도전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이정표가 될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